

같이 보기

! CEO메세지 : 새로운 60년을 향한 여정

신사옥 건립 ‘첫 삽’

새로운 60년을 향한 여정(旅程)이
시작됐습니다.

旅程

대한산업보건협회 가족 여러분.

4월입니다. 오늘은 우리의 미래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보름 남짓 전인 3월 14일, 우리 협회 역사에 기념비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충북 오송에서 신사옥 건립의 ‘첫 삽’을 뚫습니다. 신사옥 건립과 본부 이전의 여정이 시작된 것이죠.

오송 신사옥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남다릅니다.

1963년 설립된 협회는 더부살이 21년, 월세살이 15년을 거친 뒤인 1999년에야 협회 이름으로 된 서울 서초구 사옥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2023년 말에 완공되는 오송 신사옥은 우리 몸에 맞게 짓는 ‘맞춤형 보금자리’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옥이 완공되는 2023년은 협회가 설립된 지 6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오송 사옥에서 협회의 새로운 60년이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우리 앞에 펼쳐질 새로운 60년, 그리고 새로운 도약은 마음가짐과 체질의 개선에서 시작됩니다.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의 자세입니다. 활동 반경도 넓혀야 합니다. 오랜 세월 일구어 놓은 터전을 굳건히 다지는 동시에 여태껏 넘보지 않았던 미개척 분야로 진출해야 합니다.



협회 가족 여러분.

신사옥 기공식 나흘 전인 3월 10일에는 우리나라 노동과 안전보건 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이 협회를 방문했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협회를 방문하는 것은 60년 역사에서 처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제(3월 31일)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주재하는 '민간재해예방기관 간담회'에서 우리 협회가 보건관리 분야 산재예방 우수사례를 발표했습니다. 협회 구성원 모두가 자부심을 가져도 좋을 것 같습니다.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마음의 문을 열어줘야 합니다.

열린 마음으로 통통 튀는 에너지를 발산하는 한 달이 되기를 바랍니다.